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⑤

敦漸兩門 是千聖軌轍也
돈점양문 시천성개철야
則從上諸聖 莫不先悟後修
즉중상제성 막불선오후수
因修乃證 所言神通變化
인수내증 소인신통변화
依悟而修 漸顯所現
의오이수 점훈소현
非謂悟時 即發現也
비위오시 즉발현야

作懸崖之想 自生退屈
작懸崖之想 自生退屈
斷佛種性者 不為不多矣 既自未明
斷佛種性者 不為不多矣 既自未明
단불종성자 불위불다의 기자미명
亦未信他人 有解悟處 見無神通者
亦未信他人 有解悟處 見無神通者
역미신타인 유해오처 견무신통자
乃生輕慢 欺與狂亂 良可惡哉
乃生輕慢 欺與狂亂 良可惡哉
내생경만 기형광성 양가비재

경에 이르기를 "이치로는 돈오(頓悟) 단번에 뛰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하여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일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없어진다" 하였다. 그러므로 규봉 스님도, 먼저 깨달고 뒤에 뛰어가는 뜻을 분명히 밝혀 말씀하시기를 "얼어 있는 연못이 순전히 물인줄 알지 못하는 햇빛을 받아야 녹고, 범부가 곧 부처인줄을 알지 못하는 법의 힘을 빌려서 익히고 뛰어야 한다. 얼음이 녹아 물이 흘러야 바야흐로 그 물에 씻는 보람이 나타나고, 망상이 사라지면 마음이 신행

그러므로 이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이 밝아온 길이다. 과거의 모든 성인은 먼저 깨달고 뒤에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의해 증득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대가 말한 신통변화는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고 차츰 익혀야 나타나는 것이 깨달음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如經云 理即頓悟 乘悟併消
여경운 이즉돈오 승오병소
事非頓除 因次盡盡 故主聲
사비돈출 인차진진 故主聲

망상 사라지면 광명의 작용 생기니 깨달음에 의지해 닦고 차츰 익혀야

사비돈제 인차제진 고주봉
深明先悟後修之義 識水池而全水
심명선오후수지의의왈 식빙지이전수
借陽氣以銷骨 借凡夫而即佛
차양기이용소 오범부이즉불
資法力以薰修 冰消即水流潤
자법력이훈수 빙소즉수유윤
方至極處之功 安盡則心靈通 應現通光
방정개척지공 망진즉심영통 응현통광
之用 是知事上神通變化
之 用 是 知 事 上 神 通 變 化
지용 시지사상신통변화
非一日之能成 乃漸顯而發現也
비일일의능성 내점훈이발현야
況事上神通 於達人分上
황사상신통 어달인분상
猶為妖怪之事 亦是聖末邊事
유우괴사역시성말변사
雖或現之 不可要用
수혹현지 불가요용
今時迷癡輩 妄謂一念悟時 即隨現無
금시미치배 망위일념오시 즉수현무
量妙用 神通變化 若作是解
량묘용 신통변화 약작시해
所謂不知先後 亦不分本末也
所謂不知先後 亦不分本末也
소위부지선후 역불분본말야
既不知先後本末 欲求佛道 如將方木
기부지선후본말 욕구불도 여장방목
逗圓孔也 豈非大錯 既不知方便故
두원공야 기비대착 기부지방편고

하게 통하여 신통과 광명의 작용이 나타난다" 하였다. 그러므로 사실상 신통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 익히고 닦아야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실상의 신통이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깨달고 괴이한 일이고 또한 성인에게도 말단의 일이라서 혹 그것이 나타내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어리석은 무리들은 망령없이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으면 즉시 한량 없는 묘한 작용과 신통변화를 나타낸다" 하고 있다. 만약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이른바 선후를 알지 못하고 본말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미 선후와 본말을 알지 못하고 불도를 구하려 한다면 마치 모란 나무를 가지고 동근 구멍에 끼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미 방편을 모르기 때문에 절벽을 바라보는 듯한 생각을 내어 스스로 포기하여 부처의 종성(種性)을 끊는 이가 적지 않다. 이미 스스로가 밟지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깨달음까지도 믿지 않고, 신통이 없는 이를 보고는 곧 업신여긴다. 이것은 성현을 속이는 일이니 참으로 슬프다. 김원각(사인·역경위원)

혜응스님 (관음종 종정)

“참회로 ‘나’ 바로 세워

큰스님 수행한담

혜응스님 (관음종 종정)

요즈음엔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정치고 사회고 경제고 어느 한편도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 모두가 모두가 불안한 마음들일 겁니다. 이런 원인은 국가가, 국민이 주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 국민들은 그저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주체성을 상실했으며,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인지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떠들어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 못했어요. 그 진짜 이유는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서 이지요. 그것은 바로 주체성 상실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보세요. 얼마나 제각각 입니까. 이런 모습은 사실은 사대주의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사대주의는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송유역불정책으로 불교가 산으로 숨어들어간 때입니다. 송유역불정책은 당시 조정의 국가와 백성을 위해 택한 사상이 아니라 중국 사대주의에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라의 철학이자 모든 백성의 의지처였던 불교가 억압당했다는 것은 주체성을 억압당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제치하 36년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친일파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주체적이고 자존심이고 다 집어던지고 오로지 개인의 영달을 꾀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를 망친 것은 일본의 탓이 있지만 이처럼 주체성 없는 우리 백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후 우리는 6.25전쟁을 치르고 미군정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권이 있었습니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입니다. 우리의 주체성은 이때 또 다시 상실됐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에 걸친 주체성 상실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인 것을 빼놓고는 모두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시대 전까지 이어져 오던 불교정신이 한동안 끊어지면서 우리는

- 1928년 충남 천안소
1955년 강원도 강선사 입산
1959년 태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1년 대교과 수료
1962년 천안 보열사 창건
1985년 대한불교학술운영위원장
1989년 대한불교 관음종 원로원장
1999년 7월8일 대한불교 관음종 제5세 종정으로 추대
현재 천안 보열사 주석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지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된다’ 은사스님 말씀 평생 화두

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상실감만 커갈 뿐이었어요. 근면과 성실을 생활신조로 삼고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는 일마다 낭패만 보았지요.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적 상황때문인지 아니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발길이 닿는대로 떠돌다가 춘천 봉의사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엔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첫눈에 보기에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임을 느끼게 했던 그런 분이였지요. 나는 그 스님에게 그동안 겪어왔던 갈등에 대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잘 찾아왔으며, 세상의 이치를 알려면 좋은 스님 밑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당시 강촌에 있는 강선사를 찾아가 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로 강선사로 향했습니다. 무엇인가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강선사로 찾아가자 한 스님께서 수행 중에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관음종의 창종주인 태허스님이셨습니다. 스님께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제자를 받아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하지만 스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저는 잘 안되는 일을 잘되게 하는 방법을 몰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방법을 찾고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왔습니다”하며 간곡히 애달렸더니 마침내 제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나는 스님으로부터 피나는 수행의 채찍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춘천에 불교행사가 있어 은사스님께서 거기에 가서 일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혼탁하고, 스님들조차도 이들을 제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장 돌아와서 은사스님께 절을 내려가겠다고 하직인사를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후원회 : (02)705-5560-1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방송참여 : (02)705-5555~8
F A X : (02)705-5229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Table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frequency. Lists various Buddhist programs like 'Dharma Talk', 'Chanting', and 'Dharma Drama' throughout the week.